

Handball

KOREA

핸드볼코리아

2020년 05·06월 제46호

COVER STAR

빛나는 청춘

두산 정진호 × SK슈가글라이더즈 조수연

SPECIAL THEME

핸드볼 부부,
그들이 사는 세상

STORY HANDBALL

팬들의 시선은 이곳에!
구매욕구 부르는 프로스포츠 굿즈

INSIDE

생애 단 한번의 영광
역대 핸드볼코리아리그 신인왕들

U-LEAGUE

올 시즌 기대해볼
대학 신입생들은 누구?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금속활자의 고장 청주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선 첨단 반도체를 만듭니다



Handball

핸드볼코리아 KOREA

C O N T E N T S

2020년 05·06월 제46호



02 HOT ISSUE

코로나19 여파,
전 세계 대회들의 향후 일정은?

04 COVER STAR

빛나는 청춘
SK슈가글라이더즈 조수연 & 두산 정진호

10 SPECIAL THEME

핸드볼 부부, 그들이 사는 세상

14 HANDBALL 100°C

그 따뜻함, 그 정겨움
인천시청의 하루를 엿보다

18 INTERVIEW

18 우승은 모두 선수들 덕분이죠
SK슈가글라이더즈 박성립 감독

20 서른일곱 베테랑의 전성기
두산 박찬영

22 STORY HANDBALL

팬들의 시선은 이곳에!
구매욕구 부르는 프로스포츠 굿즈

24 팬인터뷰

핸드볼 마스크트
콘파카를 만나다

26 INSIDE

생애 단 한번의 영광
역대 핸드볼코리아리그 신인왕들

30 U-LEAGUE

올 시즌 기대해볼
대학 신입생들은 누구?

32 NEWS & READERS COMMENTS

핸드볼 뉴스 및 독자의견

제작협찬



발행일 2020년 5월 10일 | 통권 46호 | 정보간행물 등록번호 송파 다 00018 발행인 및 편집인 안지환
기획 허재영 편집 (주)제이앤제이미디어 발행처 (사)대한핸드볼협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SK핸드볼경기장 3층
TEL 02-6200-1414 FAX 02-420-5337 E-mail handball_pr@sports.or.kr Homepage www.handballkorea.com

코로나19 여파 전 세계 대회들의 향후 일정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위협받고 있다. 이제 인류는 코로나19 발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코로나19는 많은 것을 바꿔놨다. 스포츠도 예외는 아니다. 대한핸드볼협회는 지난 2월 22일 2019~2020 SK핸드볼코리아리그를 조기종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국내리그는 물론 전 세계 핸드볼의 대회 일정들도 모두 미뤄졌다. 기약 없이 멈춰 있는 핸드볼은 언제쯤 재개될 수 있을까.

남대표팀 올림픽 예선전, 2021년 3월로 연기

2020 도쿄올림픽은 내년 7월로 연기됐다. 이에 앞서 4월 열릴 예정이었던 남자 핸드볼 2020 도쿄올림픽 최종예선전이 내년 3월로 연기됐다.

강일구 감독이 이끄는 남자 핸드볼대표팀은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2020 도쿄올림픽 최종예선을 가질 예정이었다. 본래 일정대로라면 한국은 4월 17일 칠레, 4월 18일 브라질, 4월 19일 노르웨이와 풀리그 일정을 치러야 했다. 국제핸드볼연맹(IHF)은 4월 무관중으로 대회를 정상 진행하려 했다가 6월로 대회 개최를 한 차례 미뤘다. 그로 인해 리그가 조기 종료된 후, 강일구 감독은 선수들을 일찌감치 소집했다. 하지만, 6월 개최마저도 무산돼 모든 선수들은 각자 소속팀으로 돌아갔다.

IHF는 남자부 최종예선을 현지 시간으로 2021년 3월 12일부터 사흘간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자부 최종예선은 노르웨이 외에도 프랑스와 독일에서 펼쳐진다.

한국으로선 올림픽 최종예선이 연기된 게 아쉬운 일이다. 한국은 지난 1월 아시아선수권에서 8년 만에 결승에 오르며 분위기를 타고 있었다. 김진영(경희대), 강탄(한국체대) 등 젊은 선수들을 적극 기용하며 세대교체가 성공적으로 이뤄져 가고 있다는 평을 받았다. 강일구 감독 역시 “젊은 선수들이 아시아선수권에서 기운을 많이 얻었다. 최종예선에서도 젊은 선수들의 기운과 베테랑들의 노련미가 함께 어우러져 꼭 티켓을 땀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한국은 아시아선수권 준우승에 힘입어 상위 네 개 팀에 주어지는 2021 세계선수권대회 티켓을 따냈다.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는다면 2021 세계선수권은 2020 도쿄올림픽 최종예선보다 일찍 열릴 예정이다. 이때를 통해 세계 여러 국가 선수들과의 격차를 확인해야 한다.

다른 국제 대회도 무기한 연기

2020 도쿄올림픽 남자부 최종예선처럼 여자부 최종예선도 연기됐다. 여자부 최종예선은 올해 3월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올림픽 자체가 연기되면서 최종예선도 2021년 3월로 미뤄졌다. 여자부 최종예선은 3월 19일부터 스페인과 헝가리, 몬테네그로 세 나라에서 사흘간 펼쳐진다. 우리나라 여자 핸드볼대표팀은 이미 올림픽 진출을 확정 지었기에 최종예선에 참여하지 않는다.

올해 7월 루마니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22회 세계여자주니어선수권대회는 12월 2일로 개막일이 변경됐다. 또 8월 크로아티아에서 시작하려던 제9회 세계여자청소년선수권대회도 9월 29일로 개막 날짜를 옮겼다.

7월 10일부터 21일까지 이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17회 아시아남자주니어선수권대회는 10월 3일부터 13일까지, 3개월 후 열리는 것으로 결정됐다. 8월 15일부터 26일까지 카자흐스탄에서 시작하려던 제9회 아시아남자청소년선수권대회도 10월 24일에서 11월

3일까지로 연기됐다.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본 이탈리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20년 세계남녀비치핸드볼선수권대회는 대회 일정뿐만 아니라 개최지도 변경된다. IHF는 대회 개최지로 중동쪽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IHF는 지난 4월 24일 “IHF는 이 대회를 열기 위해 중동쪽과 접촉을 하고 있다. 모든 대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언급한 행사 외에도 6월, 8월, 11월에 폴란드-독일-태국-스페인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IHF 비치핸드볼 글로벌 투어도 모두 무기한 연기됐다.

IHF도 “모든 일정을 잠정 연기한다”라는 입장 외에는 뚜렷한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이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당분간 핸드볼 경기장에서 들리는 함성소리는 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스포츠 재개 움직임, 핸드볼 시계도 돌아가나

국제 대회뿐만 아니라 국내 대회 일정도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3월에 개막 예정이었던 2020 협회장배 전국고교선수권대회는 취소됐고, 2020 대학핸드볼리그와 제75회 전국종별선수권대회는 개막일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성공적인 방역으로 한국은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스포츠도 슬슬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야구와 축구가 5월 막을 올렸다. 일단 무관중으로 시작해 코로나19 추이를 살피며 관중 입장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핸드볼도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며 대회 개최를 고민 중이다. 타종목 스포츠와 정부가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초·중·고교 개학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

주요 국제대회 일정

대회	기간	장소
U-17 아시아 남자 비치핸드볼선수권대회	2020.09.11 ~ 09.17	태국
제9회 세계여자청소년선수권대회	2020.09.29 ~ 10.11	크로아티아
제17회 아시아남자주니어선수권대회	2020.10.03 ~ 10.13	이란
제9회 아시아남자청소년선수권대회	2020.10.24 ~ 11.03	카자흐스탄
제23회 아시아남자클럽리그선수권대회	2020.11	미정
제22회 세계여자주니어선수권대회	2020.12.02 ~ 12.13	루마니아
제18회 아시아여자선수권대회	2020.12	미정
2020 핸드볼 프리미어(서울컵)	미정	서울
제5회 아시아여자클럽리그선수권대회	미정	카자흐스탄
2020 세계 남녀 비치핸드볼선수권대회	미정	미정
도쿄올림픽 핸드볼 남자부 최종 예선	2021.03.12 ~ 03.14	노르웨이, 프랑스, 독일
도쿄올림픽 핸드볼 여자부 최종 예선	2021.03.19 ~ 03.19	스페인, 헝가리, 몬테네그로

당신의 가장 소중한

그들은 지난 겨울 투혼을 불사르며 코트를 달렸다.
 그러나 2019~2020 SK 핸드볼코리아리그는 봄을 보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피날레를 장식하지 못한 그들은 바이러스를 원망하며 코트를 떠나야 했다.
 <핸드볼코리아>가 봄의 한가운데에서 청춘 남녀를 만났다.
 바로 두산 정진호, SK슈가글라이더즈 조수연이다.
 두 선수 모두 팀의 우승 멤버이고, 포지션 또한 레프트백으로 같다.
 서로 친한 듯하면서도, 안 친하다고 말하는 두 선수를
 4월 16일, 서울 신사동에서 만났다.
 둘은 만나자마자 조기 종료된 시즌을 돌아보며 여운에 젖어들었다.
 웃음꽃이 끊이지 않았던 두 선수와의 대화 속으로 들어가 보자.

SK슈가글라이더즈 **조수연**

두산 **정진호**

**시즌을 다 마치지 못한 아쉬움
“우승을 해도 뭔가 아쉽네요”**

Q. 정진호-조수연 선수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두 선수는 서로 안면이 있나요.

조수연(이하 **수연**) 사석에서는 처음이에요. 그냥 핸드볼 잘 하는 오빠 정도?

정진호(이하 **진호**) 얼굴은 알고 지냈지만 사석에서는 처음 봐요. 수연이가 많이 바빠서 못 봐요.

수연 제가 뭐가 바빠요, 오빠.

Q. 두 선수가 속한 팀이 모두 올 시즌 우승을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우승 소감 부탁드립니다.

진호 우승하긴 했는데 아쉬운 점이 더 많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시즌이 조기 종료되어서 너무 아쉬워요.

수연 이번에 여자부 경쟁이 치열했어요. 그래서 더 뜻깊게 우승을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끝나서 살짝 허무해요.

Q. 올 시즌은 코로나19로 인해 조기 종료됐는데, 시즌을 다 마치지 못해 두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많이 아쉬워했을 것 같아요.

진호 그렇죠. 그냥 아쉽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우승한 느낌이 별로 없었어요.

수연 시즌이 단축되어 강제 휴가를 받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좋기도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마무리 되지 못해 안타깝죠.



Q. SK슈가글라이더즈 박성립 감독 역시 이번 우승이 기쁘면서도 아쉽다고 이야기했어요.

수연 더 좋은 모습으로 우승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선수들 모두 들었죠.

Q. 어쨌든 두산은 리그 5연패를 달성했습니다. 두산의 우승 비결이 뭔가요.

진호 당연히 감독님과 형들의 역량 덕분이죠. 저는 옆에서 묻혀갔죠(웃음). 두산은 조직력이 좋아요. 물론 잘하는 선수들이 많지만 그 잘하는 선수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스타 선수들이 많지만 두산은 하나로 똘똘 뭉치는 힘이 있어요.

Q. 두산 하면 역시 강한 조직력이 먼저 떠오릅니다.

진호 저희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사적인 자리에서도 운동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모든 선수가 리더십이 있고, 각자의 의견이 뚜렷한 편이에요. 그게 두산의 강점이 아닐까 싶어요.

Q. SK슈가글라이더즈는 지난 시즌 준우승의 아픔을 털어내고 우승을 차지했어요. 지난 시즌과 달랐던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수연 아무래도 (김)은아 언니, (김)선화 언니의 부상이 있기에 시즌 초반 부담감이 많았던 게 사실이에요. ‘그저 버텨보자’라는 마음뿐이었죠. 언니들 없어도 열심히 하려고 모두 노력했어요. 특히 (용)세라 언니, (조)아람 언니가 팀을 잘 지탱했죠. 어린 선수들 활약도 관찮았어요. 언니들이 빠지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해보자’라는 마음이 선수들에게 있었어요.

Q. 박성립 감독은 조수연 선수가 이제는 에이스급으로 올라왔다고 칭찬을 마다하지 않았습니.

수연 에이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선수로서 한 발 더 뛰고, 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Q. 올 시즌 치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진호 시즌 첫 경기인 충남도청전과 무승부를 기록했던 하남시청전이 기억에 남고 아쉬워요. 시즌 첫 경기는 그냥 못했던 경기였어요. 머릿속은 잘 하고 있다고 생각되었는데 경기는 계속 헤매고 있었어요. 선수들도 우왕좌왕했고요. 하남시청전은 연습을 달리던 중 비겨서 기억에 남아요. 이제는 남자부도 전력이 대등해졌다고 봐요. 내년 시즌 타팀 견제가 벌써부터 두렵네요.

수연 진 경기에서는 ‘우리가 조금만 더 잘 했으면 이겼을 텐데...’하는 아쉬움이 남죠. 기뻐할 때는 2라운드 부산시설공단전이 기억에 남아요. 그날은 선수들끼리 단합도 잘 되고, 경기도 이기고, 모든 게 잘 됐어요. 부산시설공단을 만나면 선수들의 의욕이 높아져요.

Q. 정진호 선수가 말하는 두산과 조수연 선수가 말하는 SK슈가글라이더즈는 어떤 팀인가요.

수연 편하고, 가족 같고, 선후배가 없는 팀이에요. 모두가 친언니, 친동생처럼 지내요.

진호 수연이가 제가 할 말을 다 했네요. 저희 역시 이하동문입니다(웃음).



정진호 생년월일 1991.02.23 신장/체중 185cm/83kg 출신고 부평남초·호성중·공석영공고·경희대 소속팀 두산 포지션 레프트백 주요경력 2017년 제14회 동아사이클링 핸드볼선수권대회 우승

**10년 뒤 꿈꾸는 미래
조수연은 ‘애견카페 사장’ 정진호는 ‘핸드볼 선수’**

Q. 이제 살짝 주제를 바꿔볼게요. 두 선수 모두 핸드볼계 미남 미녀 선수로 불리고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기분이 어떤가요.

수연 저는 남이 불러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건데요(웃음). 그래도 저는 미녀라는 이야기보다는 핸드볼을 잘 한다는 선수로 더 인식되고 싶어요.

진호 저 역시 미남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색해요. 오히려 (하)무경이가 두산의 얼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밖에서 ‘잘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 좋죠.

Q. 만약 두 선수가 핸드볼 말고 다른 직업을 택해야 한다면 어떤 직종에서 일할 것 같나요.

진호 핸드볼 아니어도 운동선수로 활약했을 것 같아요. 제가 핸드볼보다 축구를 더 잘해요. 중학교 때는 스카우트 제의도 왔고요. 골키퍼 빼고 전 포지션에서 자신 있어요.

수연 음...저는 학교 선생님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의외로 손재주가 있는 편이에요. 기술가정 선생님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Q. 그렇다면 반대로 현시점에서 10년 후로 가볼게요. 두 선수는 어

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수연 애견카페를 운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진호 저는 40살, 끝까지 버텨서 하루하루 방심하지 않고 운동을 계속하는 게 목표예요.

Q. 평소 핸드볼 훈련이나 경기 외에는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나요.

진호 수연이는 당구장 가지 않아요? 수연이가 정말 당구를 잘 쳐요(웃음).

수연 진짜 여러분, 아니에요. 저는 뭔가 조립하는 것을 좋아해요.

진호 저는 훈련 ‘딱’ 끝나면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아요. 게임에 집중하죠. 게임 이름은 비밀입니다.

Q. 두 선수가 봤을 때 팀 내 분위기 메이커는 누구인가요.

진호 (정)관중이? 그 친구는 정말 유쾌한 친구예요.

수연 우리 팀은 아람 언니요. 팀이 처질 때나, 이기고 있을 때나 언니의 응원이 큰 도움이 돼요.

Q. 두 선수는 누구를 보며 핸드볼의 꿈을 키웠나요.

수연 사실 롤 모델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김)은아 언니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언니의 모든 것을 배우고 따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은아 언니는 저와 다르게 차분한 스타일이에요.

진호 (정)의경이 형보고 따라 했죠. 대학교 때까지 저의 롤 모델 겸



조수연 생년월일 1994.07.06 신장/체중 172cm/65kg 출신교 성신초-휘경여중-고려국체대 소속팀 SK슈가클라이더즈 포지션 레프트백
주요경력 2014 세계여자주니어선수권대회 우승,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준우승, 2017 핸드볼코리아리그 신인왕

우상이었어요. 하지만 군대를 다녀온 후에는 롤 모델을 두지 않고 저 스스로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정진호-조수연의 바람
“팬들과 경기장에서 만나고 싶어요”

Q. 두 선수가 핸드볼을 시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직도 핸드볼의 인기가 많다고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핸드볼의 인기가 많아질 수 있을까요.

진호 다른 동계 종목 일정과 피해 리그 일정을 짚으면 좋겠어요. 그

리고 지방 도시도 좋지만, 더욱 많은 사람들이 접하기 좋은 도시에서 경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수연 지금보다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외진 곳에서 하나까 아는 사람들만 오더라고요. 조금 알려진 곳에서 경기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Q.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훈련이 힘든 상황인데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진호 훈련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에요. 정말 걱정이 많죠. 단체 운동을 못하는 시기이기에 개인적으로 몸 상태를 끌어올려야 해요. 웨이트 훈련을 열심히 해야죠.

수연 저희 역시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개인적으로 보강 운동을 하면

서 컨디션을 끌어올려야 될 것 같아요.

Q. 국제 대회 일정도 모두 연기됐기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체력적인 여유를 취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 경기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수연 경기를 언제 하든 저는 상관이 없어요. 몸을 최대한 만들어서 좋은 경기력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Q. 만약 내년 시즌 우승을 한다면 <핸드볼코리아>에 우승 공약을 하나 걸어 주실 수 있나요.

진호 다음 시즌에 우승을 하게 된다면 이번 시즌 우승 공약이었던 김동명 선수의 소고기 회식과 조태훈의 2차 회식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웃음). 저는 선수들이 정말 계산을 잘 하지 옆에서 지켜보는 역할을 맡겠습니다. 그리고 3차 회식은 제가 쏘겠습니다.

수연 음...저는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웃음).

Q.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두 선수는 다시 태어나도 핸드볼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진호 다시 태어날 생각은 안 하고 있지만 핸드볼 말고 다른 것을 시도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의경이 형이나, (박)찬영이 형, (윤경신) 감독님으로 태어난다면 한 번 해볼 만할 것 같기도 해요(웃음).

수연 저 역시 핸드볼 말고 다른 종목을 시도해보고 싶어요.

Q. 인터뷰 마지막 전에, 서로에게 한 마디 남겨보는 거 어떨까요. 먼저 오빠인 정진호 선수가 조수연 선수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호 수연이는 운동을 정말 참 잘해요. 다치지 않고 최대한 길게 선수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수연 진호 오빠가 앞으로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핸드볼 했으면 좋겠고 부상 없이 40세 넘어서까지 핸드볼 인생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Q. 훈훈한 덕담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핸드볼 팬들에게 한 말씀 남기며 인터뷰 마무리할게요.

진호 건강한 모습으로 경기장 많이 찾아와주시면 팬 서비스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하고 오셔도 좋습니다. 많은 응원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연 다음 시즌까지 몸 건강히 지내시고요. 핸드볼 실제로 보면 정말 재밌거든요. 경기장에 상품도 많이 있고요.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본 사람은 없다고 해요. 한 번 보면 꼭 빠지니까 많이 오셔서 응원 부탁드립니다. 🌟

두 선수에게 궁금했던 점 ‘마구마구 물어봐’

<핸드볼코리아>는 지난 4월 7일부터 15일까지 핸드볼협회 공식 SNS를 통해 팬들의 질문을 받았다. 지면상 모든 질문을 신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Q. 정진호 선수, 지난 시즌까지 등번호 43번을 달다가 이번 시즌 1번으로 바꾼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닉네임_이상훈

진호 43번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다른 번호를 물색하던 중 1번이 눈에 띄더라고요. 한 자릿수 등번호로 바꾸고 싶었던 게 컸죠.

Q. 정진호 선수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닉네임_Sejin LEE

진호 매력이요? 음...저의 매력을 저도 모르겠어요. 아직 해방하지 않았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Q. 조수연 선수를 제외하고 여자 선수 중에서 가장 귀여운 핸드볼 선수는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닉네임_Sejin LEE

수연 아무래도 같은 팀에서 뛰고 있는 (최)수지죠. 핸드볼 계에서는 아이돌로 뽐히고 있으니까요.

Q. 두 선수 모두 운동하면서 힘든 순간은 없었나요. 닉네임_박은택

수연 운동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매 경기가 고비였죠. 학창 시절에 선생님들이 믿고 밀어주셨기에 여기까지 왔다고 봐요.

진호 핸드볼 처음 시작했을 때가 위기였어요. 그때 다른 생각을 했더라면 핸드볼을 아예 시작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Q. 핸드볼 선수로 지내며 느낀 장단점을 말해 주세요. 닉네임_대전여자

진호 단점은 아무래도 비인기 종목이어서 아쉽죠. 장점이라면 많이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치는 거에 비해 신경 안 쓰고 돌아다니는 건데요, 얼른 인기가 많아졌으면 좋겠죠.

수연 저 역시 비인기 종목인 게 많이 아쉬워요. 비인기 종목의 선수여서 슬프죠. 그래도 장점이라면 제가 잘 할 수 있는 게 있어 행복해요. 🌟



핸드볼 부부, 그들이 사는 세상 또 한 쌍의 핸드볼 부부 탄생

핸드볼은 왜 유독 연상연하 선수 부부가 많을까?

이번 비시즌에도 핸드볼 선수들의 결혼 소식이 들려왔다. 그것도 사내커플이다. 주인공은 5월 23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현식(28, SK호크스)과 조아람(32, SK슈가글라이더즈). 핸드볼은 유독 연상연하 선수 부부가 많다. 이현식, 조아람 외에도 국가대표 골키퍼 부부로 화제를 모은 강일구(44, 남자핸드볼 대표팀 감독)-오영란(48, 인천시청), 결혼 2년 차 정한(32, 삼척고 코치)-용세라(33, SK슈가글라이더즈)가 대표적이다. 이들의 첫 만남부터 행복한 결혼 생활까지. 핸드볼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SK 남녀 공동 우승 이끌고 싶어요”

최근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은 속앓이가 심하다. 코로나19 확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며 외출을 자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신혼여행을 취소하는 예비부부들의 뉴스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5월 23일 결혼식을 갖는 이현식-조아람도 걱정이 많다. 이현식은 “갑작스런 코로나19로 조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결혼식과 신혼집 준비는 작년에 다 끝냈지만, 신혼여행은 시즌이 종료되면 천천히 알아보려 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시즌이 조기 종료되면서 신혼여행은 잡아보지도 못했다. 다음 시즌이 끝나면 휴식 기간에 간단하게라도 다녀와야 할 것 같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SK 남녀 구단에서 한술밥을 먹고 있는 두 선수의 첫 만남은 2014년으로 돌아간다. 친한 선후배 모임에서 처음 본 이현식과 조아람은 급격히 친해졌다. 같은 핸드볼 선수였기에 연애하기까지는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만날수록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이 커졌다. 이현식은 첫 만남부터 조아람에게 호감이 있었고 조아람은 이현식의 유머와 젠틸함에 반했다.

같은 종목 선수끼리 사귀면 자주 만나지 못할 거란 생각은 편견이다. 핸드볼리그는 남녀부가 한 지역에서 경기를 소화한다. 이현식과 조아람은 서로의 경기가 끝나고 리그가 열리는 지역의 맛집이나 카페를 찾아 데이트를 즐겼다. 이현식은 “많은 분들이 선수끼리 만나면 자주 못 볼 거라 예상하더라.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핸드볼은 한 지역에서 남자부와 여자부가 같이 경기한다. 그래서 경기가 끝나면 커피를 한잔하거나 함께 핸드볼을 구경하는 등 남들이 모르는 은근한 재미가 있다”라며 핸드볼 선수 커플만이 즐길 수 있는 비밀을 밝혔다.

두 사람의 관계는 만남을 거듭할수록 깊어졌다.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진지한 얘기도 오갔다. 재밌게도 6년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한 계기는 두 사람이 같았다. 서로의 가족에게 잘 대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구나”라고 느꼈단다. 이현식은 “우리 가족에게 잘하는 걸 보고 결혼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라고 결혼을 처음 생각했던 때를 떠올렸다. 조아람도 “현식이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더라. 특히 우리 부모님께 정말 잘했다. 그게 컸다”라며 고개를 끄덕인다.

이현식과 조아람은 상대방이 같은 핸드볼선수라서 더 좋다고 말한다. 보통 같은 종목 선수끼리 만나면 장점과 단점이 모두 공존한다. 하지만 이들은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다고 강조한다.

이현식 “핸드볼선수들은 바쁜 시기도 같지만 쉴 때도 똑같다. 일반 커플들은 쉴 때가 서로 달라 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선수 커플은 그렇지 않다. 또 같은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일반인보다는 나를 더 잘 이해한다. 선수들은 화식도 많고 특유의 선후배 문화도 있어서



이현식 & 조아람 부부



강일구 & 오영란 부부

이해하기 쉽지 않다.”

조아람 “스케줄이 비슷해서 좋다. 또 서로에 대한 이해가 넓은 것도 장점이다. 운동하면서 어떤 점이 힘들고 심적으로 많이 괴로운 지 잘 알 수 있다. 굳이 단점을 꼽자면 보고 싶을 때 보지 못한다는 거다. 선수들은 시즌, 비시즌 모두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시간이 한정적이다.”

시즌 일정을 고려해 결혼 준비는 지난해 다 마쳤지만 준비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신혼집은 이현식의 숙소와 가까운 청주로 잡았다. 결혼 전이지만 금요일, 토요일엔 신혼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다. 일요일엔 훈련을 위해 각자 소속 팀 숙소로 돌아간다.

조아람은 “결혼은 처음이라 힘든 게 산더미더라(웃음). 웨딩 사진 찍는 것부터 가구 보는 것까지. 하나하나 모두 준비하는 게 힘들었다. 현식도 마찬가지로였다. ‘아 이래서 사람들이 결혼 2년 못한다고 하는 거구나’라고 느꼈다(웃음). 처음 집을 구했을 때는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다. 같이 산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집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됐구나, 부부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새 보금자리 마련 후 결혼에 대한 실감이 크게 온다고 했다.

이현식과 조아람은 결혼 후 치르는 새 시즌에 대한 기대가 크다. 다음 시즌 목표는 SK 남녀 팀이 동반 우승해 함께 정상에 오르는 것이다.

이현식 “아람이가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을 거다. 조금 더 힘냈으면 좋겠다. 아람이 이 시기를 견뎌내서 돌아오는 시즌엔 SK 남녀 팀이 모두 우승하도록 하자. 우리 팀만 잘하면 되겠지(웃음)? 열심히 노력할게.”

조아람 “현식이 결혼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준비 잘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이번 시즌 열심히 해서 항상 우리들의 목표였던 동반 우승을 이뤄내자.”

연상연하 핸드볼 부부 선배들

“참 희한하다. 우리 부부를 시작으로 계속 연상연하 핸드볼선수 부부가 나오더라. 몇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나오는데 내가 생각해도 신기하다. 이제 후배 선수들이 결혼하면 나한테 전화가 온다.” 이현식, 조아람 커플의 결혼 소식을 전하자 강일구 남자 핸드볼 대표팀 감독은 웃음부터 짓는다. 연상연하 핸드볼부부의 시작이 바로 강일구 감독이기 때문이다.

2002년 결혼한 강일구-오영란의 결혼 소식은 핸드볼을 넘어 스포츠계 큰 이슈였다. 두 사람 모두 현역 시절 국가대표 골키퍼로 이름을 떨쳤다. 같은 종목에 동일한 포지션. 거기에 대표팀 출신 남녀 선수가 결혼을 했으니 당연히 반응은 뜨거웠다. 당시는 흔치 않았던 연상연하 커플인 점도 화제를 모았다.

“옛날엔 태릉선수촌에서 다 같이 모여 운동했다. 그때 선후배 관계로 만났다가 친해졌다. 그 당시엔 누나들에게 인사 열심히 안 하면 혼났다(웃음). 누나들이 보기에 남자 대표팀 막내들이 얼마나 귀여웠겠냐. 힘들면 좋은 얘기해주고 잘 챙겨주니까...그러다보니 서로 마음이 통하게 된 것 같다.”

어느덧 결혼 18년 차 베테랑 부부. 남편은 대표팀 감독, 부인은 실업팀 플레이코치지만 집안에서 핸드볼 얘기는 하지 않는단다.

“핸드볼부부면 집에서 핸드볼 얘기 많이 하냐고 자주 물어본다. 개

인적으로 집에서만이라도 핸드볼 얘기는 하고 싶지 않더라. 아예 안 하진 않지만, 집에서는 최소한으로만 하려고 한다.”

조아람과 같은 팀에 있는 용세라 역시 연상연하 핸드볼 부부다. 결혼 2년 차인 용세라는 “체대 시절 동생이 제일 아끼는 후배라고 해서 같이 밥을 먹은 게 남편과의 첫 만남이었다. 이후 사복 입은 모습에 반했다”라며 남편 정한 코치와의 첫 만남을 돌아봤다. “가벼운 사람이 아니고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부분이 좋더라. 남편이 연애할 때는 애교도 없고 무뚝뚝한 편이었다. 그런데 결혼 후 애교가 많아졌다.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라며 결혼 후 바뀐 남편 얘기도 덧붙였다.

여느 사내커플이 그러하듯 용세라 부부도 처음엔 비밀 연애였다. 하지만 비밀 연애는 오래가지 못했다. 용세라는 “처음엔 당연히 당분간 비밀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하지만 비밀 연애는 일주일도 못

갔다. 나와 남편이 같이 있는 걸 어떤 선배가 보고 얘기하더라.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말하자’고 마음먹고 공개 연애를 하게 됐다”라며 공개 연애로 바뀐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평소 SK슈가글라이더즈 내에서도 절친한 언니 동생 사이인 만큼, 결혼을 앞둔 조아람은 용세라에게 궁금한 게 많다. 핸드볼부부 선배인 용세라도 조아람에게 조언과 덕담을 아끼지 않았다.

“결혼 소식을 듣기 전부터 아람이 커플이 조만간 결혼할 거라고 예상했다. 남편 될 분이 정말 착실하고 아람이 성격도 잘 맞춰주더라. 나랑 아람이 성격이 비슷하다. 활발하고 텐션이 높다. 근데 남편들은 안 그렇다. 그래서 잘 맞는 것 같다. 아람이가 요즘 청첩장이나 폐백 같이 결혼 준비 과정에 대해 많이 물어본다. 핸드볼 부부는 서로 같은 길을 걷지 않나. 힘든 일도 잘 이겨내고 즐기면서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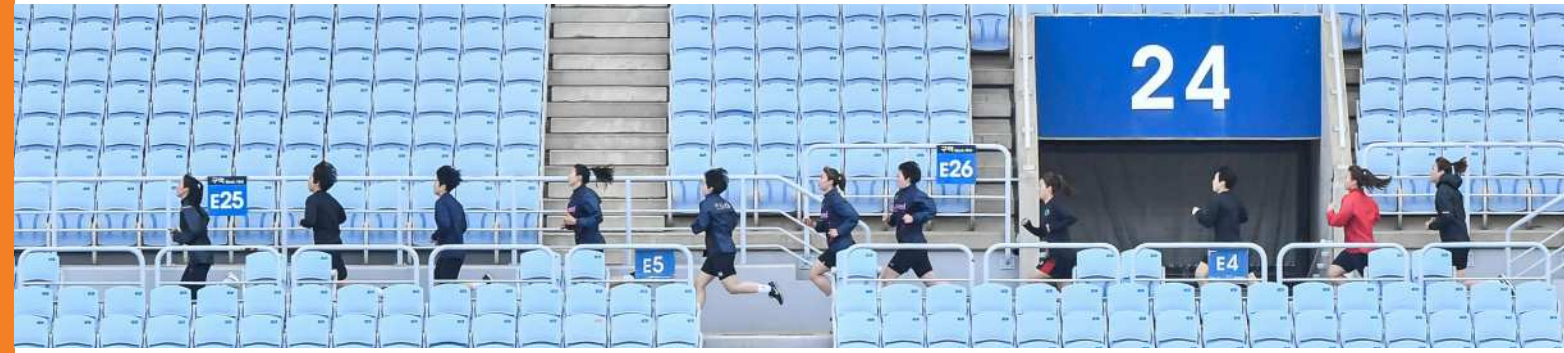
정한 & 용세라 부부





그 따뜻함, 그 정겨움 인천시청의 하루를 엿보다

신은주, 오영란, 문필희까지 전향적 국가대표가 모여있는 인천시청. 여자 핸드볼 팀 중 유일하게 2번이나 연속 우승을 차지한 강호다(2011시즌~2012시즌, 2014시즌~2015시즌). 하지만 2019~2020시즌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7위에 머물렀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유계약(FA)으로 팀을 옮긴 송지은(삼척시청)과 원선필(광주도시공사)의 공백을 막지 못한 게 컸다. 그렇기에 인천시청은 다른 팀들보다 시즌을 일찍 준비하기로 마음먹었다. 3월 초부터 모여 훈련을 진행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볼 훈련을 하지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일찍 웨이트 훈련 및 간단한 훈련 등을 통해 곧바로 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몸 상태를 끌어올리는 중이다. 이들의 하루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겨울과 봄 사이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던 4월 23일, 인천문학경기장에 다녀왔다.



“모두 열심히 해보자” 오전부터 훈련에 열중하다

오전 10시경 인천시청 선수단이 웨이트 훈련하는 인천문학경기장에 속속 모이기 시작했다. 웨이트 훈련장에는 인천시청 핸드볼팀뿐만 아니라 레슬링팀, 유도팀이 모두 모여있었다. 각 팀의 베테랑들은 웨이트 훈련의 시작을 알리는 큰 구호를 외쳤다. 인천시청 선수들은 코스별로 진행되는 웨이트 훈련을 착실하게 임했다. 무거운 중량의 바벨을 어깨에 짊어지고 ‘악소리를 내며 들어 올렸다. 팀 내 최고참이자 플레이코치인 오영란은 선배이자 언니의 마음으로 후배들의 동작을 하나하나 지켜봤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애 하는 거 봐봐”, “(신)은주랑 너랑 뭐가 다르게 알겠지?”, “힘들지, 호흡법 생각하며 천천히 해”라고 말하며 때론 채찍을, 때론 선수들에게 칭찬을 해줬다. 선수들도 만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으며 훈련을 이어갔다. 코로나19 때문에 볼 운동을 하지 못하고 웨이트 훈련 또는 가벼운 러닝 훈련만 이어가고 있으니 선수들이나 조한준 감독도 답답하다. 조한준 감독은 “거의 공을 못 만지고 체력 위주의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휴가 때보다 시간적인 여유가 더 많아졌다. 선수들이 나타해질 수도 있어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래도 조 감독은 “신은주, 오영란, 문필희, 감성은 등이 선수들의 사기를 끌어올려 오전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고마울 뿐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약 한 시간의 웨이트 훈련이 끝나고 조한준 감독은 선수들을 문학경기장 2층 관중석으로 불렀다. 그러자 선수들의 입에서는 탄식이 흘러

나왔다. 선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고강도 인터벌 훈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운동장 한 바퀴를 정해진 시간에 맞춰 뛰어야 한다. 빨리 뛰어서도, 늦게 뛰어서도 안 된다. 체력과 시간 안배가 모두 필요한 훈련이다. 주장 신은주를 필두로 선수들이 천천히 달리기 시작했다. 반 바퀴 정도 걸던 선수들은 갑자기 무서운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다. 선수들은 숨을 헐떡였지만, 조한준 감독은 선수들에게 “한 바퀴 더”라고 말하며 선수들을 움직임을 계속 관찰했다. 드디어 계획된 오전 훈련이 11시 40분에 끝났다. 숨을 헐떡거리던 선수들의 얼굴에도 그제야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다. 각자 스트레칭을 한 뒤 점심 식사를 위해 구단 버스에 올라탔다.

만언니가 짜주는 식단 동생들은 맛있게 남남!

인천시청 선수들의 숙소는 문학 경기장에서 차로 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2개의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식사만큼은 한 장소에 모여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 숙소 아주머니가 차려준 밥상을 어린 동생들이 차리기 시작했다. 인천시청의 식단은 비밀이 하나 있다. 오영란 코치가 선수들 몸에 좋은 음식으로만 식단을 구성한다. 점심과 저녁 식사는 주로 열량이 높은 식단으로, 아침 식사는 가볍게 요기할 정도로 식단을 구성하고 있다. 조한준 감독은 “오영란 코치가 선수들과 뭐 먹고 싶는지 듣는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밥상을 차려주시는 영양사와 회의를 통해 식단을



정한다. 선수들의 의견이 반영되다 보니 식단의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편이다”라고 웃었다. 신은주도 “이모님(숙소 아주머니)이 음식을 정말 잘 하신다. 맛있는 음식 먹고 싶은 선수들은 인천시청에 오면 된다”라고 선수들을 이야기했다.

선수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궁금했다. 들려오는 대답은 다양했다. 신은주는 “이모님의 미나리 무침이 정말 맛있다. 나물을 정말 잘 하신다”라고 말했다. 어린 선수들이 좋아하는 메뉴는 단연 고기류였다. 김성은은 “고기류가 정말 맛있다. 제육볶음도 맛있고, 보쌈도 맛있. 시험 나가는 날에는 무조건 고기류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했다.

<핸드볼코리아>가 찾은 날 점심 메뉴로는 동태탕, 계란말이, 무김치, 갯김치, 멸치조림, 김가루, 미역 등이 나왔다. 메인 메뉴인 얼큰한 동태탕은 금세 동이 날 정도로 맛있었다. 선수들은 예능 프로그램을 켜놓고 수다를 떨며 점심 식사를 즐겼다. 20분 정도의 점심 식사를 마친 뒤에는 설거지 할 사람을 정하는 가위바위보가 이어졌다. 이긴 사람은 환호를, 진 사람은 조용히 싱크대로 향했다. 감독님에게 조심스럽게 “방도 공개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정리된 방이 없을 것 같은데요”라고 웃었다. 선수들의 방은 다음에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다음에 밥 먹으러 또 오면 그때는 보여드릴게요”라고 약속했다.

화목한 분위기를 경기에서도 보여드릴게요

맛있는 점심까지 먹고 꿀맛 같은 휴식이 이어졌다. 오후에는 볼 훈련을 진행하지 못하는 관계로 선수들은 휴식을 취하거나 개인 훈련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은 휴식 대신 훈련을 택했다.

지난 시즌 부진했던 팀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모두 훈련에 집중한다. 조한준 감독은 “지난 시즌에는 FA 선수들의 이탈, 부상 선수들도 너무 많았다. 주전 7명 중 4명이 부상이었다. 3라운드부터라도 정상적인 라인업을 가동하고 싶었는데 리그가 조기 종료되어 아쉽다”라고 이야기했다.

어린 선수들의 의지는 대단하다. 김한령, 이예은, 오예담, 신다래 등 저



년 차 선수들은 자진해서 훈련에 매진한다. 특히 <핸드볼코리아>가 2019-2020시즌을 앞두고 기대주로 뽑았던 오예담은 지난해 7월 레바논에서 열린 제15회 아시아여자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무릎 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당해 지난 시즌 한 경기도 뛰지 못했다. 조한준 감독은 “저년 차 선수들의 의지가 대단하다. 오예담이 무릎 십자인대 수술 후 7개월 만에 복귀했다. 자신의 한계나 단점을 성실함으로 커버하고 있다. 부상만 없다면 제 몫을 다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코로나19로 일정이 변경될 수는 있지만 조한준 감독은 5월 중순부터는 볼 훈련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감독은 “코로나19가 풀리면 5월부터는 조금씩 볼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우리 팀은 모든 포지션을 강화 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훈련을 해야 한다. 우리 팀은 아직 어린 선수가 많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조한준 감독은 인천시청에서만 실업팀 지도자 생활을 이어왔다. 인천시청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인천체육회에서 인천시청으로 명칭만 바뀌었지만, 나는 여기에 계속 있었다. 선수들이 성실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많은 노력을 한다. 우리 팀 선수들이 신나게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드래프트 지명 후 FA가 되려면 5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5년 동안 한 팀에서 머물러야 한다면 성장하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운동해 자신의 기량을 올렸으면 좋겠다.”

조한준 감독의 올 시즌 목표는 전국체전 우승이다. 인천시청은 지난해 전국체전 결승전에서 컬러풀대구에 패하며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다. 조한준 감독은 “우리는 리그보다는 전국체전에 욕심을 두고 싶다. 전국체전은 단기전이기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말했다.

조한준 감독은 “올해 신인 드래프트나 FA 영입을 통해 전체적으로 빠른 팀을 만들고 싶다. 선수들이 웃으면서 핸드볼을 하기 바란다. 선수들의 몸값은 선수들이 올려야 한다. 소속팀에 애정을 갖고 즐겁게 훈련하고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을 전했다.



신은주 & 김성은이 말하는 인천시청

Q. 두 선수, 시즌 끝나고 어떻게 지내셨나요.

신은주 김성은 리그 끝나고 2주 정도 휴가를 받았어요. 휴가 끝난 뒤에는 팀에 들어와 훈련을 진행하고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볼 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웨이트나 러닝 훈련을 많이 하고 있죠.

Q. 신은주 선수는 비시즌에 이렇게 쉬는 게 오랜만이에요.

신은주 그렇죠. 내년에는 많이 바쁠 것 같아 올해 체력 관리에 더 신경을 쓰고 있어요. 원래 프로틴을 먹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었는지 근육이 붙지 않더라고요. 프로틴도 먹고 웨이트 훈련을 통해 체력 관리를 하고 있어요.

Q. 훈련 외 시간은 어떻게 보내는 편인가요.

김성은 보통은 숙소에서 많이 쉬죠. 물론 밖에 나가서 쇼핑도 하고, 모여서 밥 먹으러 갈 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강아지를 좋아해서 강아지랑 많이 노는 편이죠.

Q. 두 선수가 말하는 인천시청은 어떤 팀인가요.

신은주 분위기가 잘 잡혀 있어요. 모든 선수들이 눈치가 빨라요. 감독님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단번에 파악하기 때문에 훈련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김성은 언니가 말한 대로 선수들이 받아들이는 게 빨라 좋아요. 선수들끼리 질서가 잘 지켜지는 편이죠. 너무 풀어진다면 훈련이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인천시청은 그런 게 없죠.

Q. 팀 내 분위기 메이커도 당연히 있겠죠.

신은주 김성은 (신)다래요. 눈치도 많이 보고 하는데 애교도 있고 엉뚱한 짓도 많이 해요. 감독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말하면 다래가 ‘오, 미소요’라고 말해요. 그러면 모두가 웃음이 터지죠. 그렇게 무거운 분위기를 딱딱하게 하지 않으려는 게 다래의 매력이에요.

Q. 시즌 전에 신인 선수 드래프트가 열리잖아요. 신인 선수들에게 ‘인천시청에 오면 이것만큼은 좋다’ 한 가지만 말해볼까요.

김성은 실력을 많이 키울 수 있어요. 저도 데뷔 시즌에는 잘 못했어

요. 그런데 시즌을 치르면 치를수록 옆에서 피드백을 많이 해주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기량이 오르더라고요.

신은주 우리 팀은 어린 선수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팀이에요. 자신이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기회를 빨리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Q. 감독님의 실력이 탁월한가 보네요. 두 선수가 말하는 감독님은 어떤 사람인가요. 다섯 글자로 표현해볼까요.

신은주 ‘무표정악마’. 표정이 없으세요. 엄청 힘든 것을 시키셔도 표정 없이 ‘할 수 있는 거야’라고 말씀하세요(웃음).

김성은 음... 저는 ‘알다가모름’이요(웃음). 감독님의 속 마음을 모를 때가 있어요. 물론 대부분을 이해하긴 하는데 가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말씀하셔서 ‘응?’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죠.

Q. 지난 시즌 인천시청의 성적이 저조했어요. 다가오는 시즌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남다를 것 같아요.

김성은 지난 시즌에 7위를 했는데 내년 시즌에는 그것보다 더 높은 순위로 올라가야죠. 내년 시즌에는 포스트시즌에 꼭 진출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언제 들어가도 자기 몫을 다하는 선수가 되어야죠.

신은주 인천시청에 와서 이렇게 저조한 성적을 거둔 게 처음이에요. 4년 차까지는 우승권에만 있었거든요. 그때는 한 번만 저도 평평 울었고요. 하지만 제가 선배가 빨리 됐기 때문에 경기에서 지더라도 후배들을 끌고 가야 해요. 그러면서 다치지 않고 리그를 마감하고 싶어요. 도쿄올림픽이 기다리잖아요.

Q. 두 선수와 인천시청을 이렇게 알아가네요.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한 마디 전해주세요.

신은주 핸드볼이 알고 보면 어렵지 않은 종목이거든요. 요즘은 옛날 만큼 팀들 간의 실력차도 많이 안 나기 때문에 경기도 재밌고요. 많이 찾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은 좋은 경기, 지루하지 않은 경기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놀러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

인천토박이 신은주의 추천 맛집 TOP2

“인천에는 맛집이 정말 많은데요. 그중 두 군데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먼저 송도에 있는 ‘피제리아’라는 파스타 집이에요. 정말 파스타가 일품이에요. 거기에 가면은 로제 파스타 종류(가격 18,000원)를 꼭 한번 드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식사를 한 후에는 카페를 가야죠. 송도에서 선재도까지 드라이브를 즐긴 후에 ‘빨다방’이라는 카페를 가보셨으면 해요. 카페에 포토존도 많고, 앞에 바다가 훤히 보이거든요. 사진도 찍고, 이야기도 나누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장소예요.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차이나타운’을 한 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우승은 모두 선수들 덕분이죠



두 시즌 만에 정상 복귀 SK슈가글라이더즈 박성립 감독

SK슈가글라이더즈를 이끌고 있는 박성립 감독에게 이번 시즌은 뜻깊다. 부임 두 시즌만에 우승을 차지하며 지난 시즌 아쉬움을 털어냈다. <핸드볼코리아>는 4월 14일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SK슈가글라이더즈 구단 사무실에서 올 시즌 뒷이야기와 앞으로 박성립 감독이 꾸밀 핸드볼 이야기를 들어봤다.

시즌 조기 종료, 승점 21점으로 우승

박성립(47) 감독이 이끄는 SK슈가글라이더즈는 승점 21점(9승 3무 2패)을 기록하며 부산시 설공단(승점 20점)과 삼척시청(승점 19점)을 제치고 두 시즌만에 리그 패권을 탈환했다. 박 감독은 “우승은 해도 해도 좋다. 선수들에게 너무 감사하다. 올해 여자부 같은 경우는 순위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과 코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뒤늦은 우승 소감을 전했다. 올 시즌은 코로나19 여파로 리그가 조기종료됐다. 선수들의 속마음은 어땠을까. 박 감독은 “사실 아쉬움 반

기쁨 반이었다. 리그가 조기 종료되면서 선수들이 남은 경기를 못 뛰었다. 포스트시즌 뛰어보고 싶은 선수도 있고, 우리 팀은 김은아-김선화가 중반부터 뛸 수 있었기에 더욱 아쉬웠다. 그래도 우승 컵을 들었기에 기뻐다.”

박 감독은 지난 2017년 여름 감독으로 부임했다. SK슈가글라이더즈는 2018-2019시즌 정규리그를 2위로 마친 뒤 플레이오프에서 삼척시청을 꺾고 순조롭게 챔피언결정전에 올랐으나 준우승에 그쳤다. 그때 아쉬움은 지금도 박 감독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박 감독은 다시 팀 전력을 가다듬



었다. 조수연, 최수지, 김은아, 김선화, 유소정 등이 국제 대회 일정으로 인해 대거 빠져나갔지만 이 기회에 어린 선수들을 키워야겠다고 결심했다. 박 감독은 “비시즌에 코치들이 어린 선수들을 많이 훈련시켰다. 김금정, 이한솔, 이민지를 데리고 집중 훈련했다”라고 말했다.

어린 선수들의 집중 훈련은 1라운드부터 바로 효과를 봤다. 김은아-김선화가 부상으로 신음하는 동안 공들여 육성한 어린 선수들이 맹활약을 했다. 그 덕분에 SK슈가글라이더즈는 4승 3무 승점 11점을 기록하며 1라운드를 선두로 마무리했다. 그 때를 다시 떠올리면 박 감독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다. “조수연, 최수지가 복귀했을 때 어린 선수들의 자신감이 넘쳤다. 개인 훈련을 했던 게 1라운드에 효과를 봤다. 부담 없이 플레이했던 게 성적이 큰 영향을 미쳤다.”

조수연-유소정에 대해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제는 두 선수가 신예급이 아니라 한 팀을 이끌 수 있는 에이스급으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유소정은 올 시즌 공격포인트(165) 1위, 득점(107점)과 어시스트(58)는 2위에 올랐다. 조수연도 65골 36어시스트 11스틸을 기록했다. 박 감독은 “두 선수가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팀 내에서는 중교 참여 속한다. 유소정은 지난 시즌에도 잘 해줬다. 사실 조수연은 대표팀에 가 있으면서 팀 훈련을 잘 소화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두 선수가 김은아-김선화가 빠진 공백을 잘 메워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 시즌 팀 내 MVP로 유소정을 뽑았다. “소정이가 잘했다. 온아가 늦게 합류했음에도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은 유소정 선수 덕분이다. 올 시즌 여자부 FILA 포인트 1위도 유소정이다. 올 시즌 MVP다.” 참고로 유소정은 FILA 포인트 300점을 기록하며 294점을 기록한 강경민(광주도시공사)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성숙된 기량을 발휘하고 있는 유소정이지만 아직 김은아, 류은희처럼 큰 선수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 박 감독은 “유소정은 기록이 심하고 멘탈이 약하다. 숲이 잘 들어가고 멋있게 들어가면 그날은 쉽게 경기를 풀어간다. 하지만 숲이 한두 개 정도 막히면 멘탈이 급격히 흔들린다. 고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빠른 스피드로 성적과 관중 모두 잡는다

박 감독을 인터뷰 할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체육시설이 문을 닫은 상태였다. SK슈가글라이더즈 역시 제대로 된 훈련을 소화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저 간단한 체력 훈련만하고 있었다. 박 감독은 “너무 많이 쉬면 안 되는데...”라고 운을 뚫 뒤 “선수들도 그렇겠지만 나도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다”라고 말했다.

체력적인 여유를 느낄 수 있지만 박 감독은 다른 의견을 내비쳤다. 이런 휴식이 선수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박 감독은 “선수들에게는 경기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알 수 있다.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는 9월에 아시아클럽선수권 대회가 있다. 그것도 연기되면 기초 체력 훈련이나 선수 맞춤형 훈련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라고 운영계획을 밝혔다.

SK슈가글라이더즈는 두 시즌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여자부에서 두 시즌 연속 우승을 차지한 팀은 인천시청이 유일하다. 박 감독은 속공 플레이를 앞세워 또 한 번 정상 등극을 준비한다. “경기를 재밌게 해야 관중도 많이 온다. 항상 선수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지고 있는데 상대를 따라가려면 속공을 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최수지, 김선화, 김은아, 유소정 모두 빠르고 영리한 선수들이다. 다른 팀보다 속공은 자신 있다. 우승하려면 빠른 공수 전환이 필요하다.”

박 감독은 30대 중반으로 가고 있는 김은아-조아람-용세라에게 잠시 시선을 돌렸다. 팀을 이끌고 있는 베테랑이다. 박 감독은 여전히 이들 경험과 실력을 믿고 있다. 박 감독은 “베테랑 선수들은 자기 할 일을 알아서 다 한다. 사실 부상을 달고 산다. 김선화는 4월 중순에 팔꿈치 수술까지 했다. 그럼에도 후배들도 이끌고 자기 할 일을 다 해줘서 고맙다. 내가 거기에 시간을 안 쏟아도 된다”라고 믿음을 보였다. 이어 “베테랑 선수들이 술선수범하니까 동생들도 언니들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고 덧붙였다.

박 감독은 전력 보강 방향에 대해 “바뀌는 선수는 없을 것이다. 신인 드래프트로 눈을 돌리면 올해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 기회가 된다면 골키퍼를 뽑고 싶다”라고 말했다. 어느덧 인터뷰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다. 박성립 감독은 선수들에게 한 마디 남기며 인터뷰를 마쳤다.

“코로나19 때문에 시즌이 조기 종료되어 아쉽다. 내년 시즌에는 수비도 강화하고 더 빠른 핸드볼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선수들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 내가 잘 몰지 않는데 지난 우승 희식 때 선수들 때문에 눈물이 날 뻔했다. 다가오는 시즌도 다 같이 힘내서 잘 해보겠다.”

서른일곱 베테랑의 전성기

두산 박찬영

또 한 번 두산이 우승을 차지했다. 5연속 우승이다. '어차피 우승은 두산'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던 이유는 이 선수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바로 베테랑 골키퍼 박찬영이다. 산전수전을 모두 겪은 만 37세 박찬영은 올 시즌 방어율 1위(43.13%), 세이브 2위(135세이브)에 올랐다. 그는 리그 BEST7 골키퍼 부문 수상과 함께 생애 첫 리그 MVP 수상이라는 기쁨도 맛봤다. 이제는 조금씩 은퇴를 생각하고,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한다는 박찬영. 핸드볼 선수 인생의 끝에서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은 박찬영을 4월 17일 경기도 의정부에서 만났다.



“동명이나 의경이가 MVP 탈 줄 알았죠”

코로나19로 인해 2019~2020 SK핸드볼코리아리그는 지난 2월 22일 조기 종료됐다. 포스트시즌은 물론이고, 정규리그도 다 치르지 못했다. 지금까지 많은 우승을 맛봤던 박찬영에게 조기 종료에 따른 시즌 우승은 느낌이 이상했다. “우승을 했지만 리그를 다 마치지 못하고 해서 떨떠름하다. 기본 좋게 축하도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하지 못했다. 우승 회식도 못하고, 피날레 장식도 제대로 하지 못하니 아쉬웠다. 물론 우승을 하면 기분은 좋다.”

우승과 함께 또 하나의 기쁨을 맛본 박찬영이다. 박찬영은 2012시즌 이후 처음으로 리그 BEST7 골키퍼 부문에 이름을 올렸고, 남자부 정규리그 MVP에도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새겼다. 골키퍼로 MVP를 수상한 선수는 남녀부 통틀어 두 번째다. 2012시즌에 삼척시청 박미라가 여자부 MVP를 탄 적이 있다. 남자부는 박찬영이 최초다. “연말 시상식에서 최우수 선수상이나 리그 BEST7은 받아봤는데 MVP는 처음이다. 내가 잘한 것은 없다. 선수들이 열심히 운동해 줬는데 내가 베테랑이라서 상을 받는 것 같다. 우리 팀은 수비가 좋



다. 수비 선수들에게 항상 고맙다.”

박찬영이 MVP를 탈 수 있었던 비결에는 책임감이 있다. 그는 “내가 최종 수비인 만큼 ‘내가 무너지면 팀이 무너진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간다. 수비를 책임지는 (나)승도랑도 이야기를 많이 했다”라고 말했다.

사실 박찬영은 MVP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공격을 이끄는 정의경과 수비의 핵 김동명, 두 선수 중 한 명이 탈 것이라고 생각했다.

박찬영은 “아무래도 우리 팀 공격은 (정)의경이가 이끌고, 수비는 (김)동명이가 다 하기에 두 선수 중 한 명이 받을 줄 알았다. 내가 받으니 조금 쑥스럽다”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두산은 전·현직 국가대표를 대거 보유하고 있다. 비록 연기되긴 했지만 4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2020 도쿄 올림픽 최종예선 국가대표팀에 남자부 팀 중 가장 많은 6명(박찬영, 정관중, 정의경, 조태훈, 구창은, 김동명)이 차출된 바 있다. 이렇다 보니 팬들 사이에서는 ‘어우두(어차피 두산이 우승)’라는 말이 나오곤 한다. 두산의 우승을 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박찬영은 ‘의사소통’이라는 단어를 꺼냈다.

“서로 의사소통이 좋다. 감독님이 잘 이끌어 주신다. 운동을 심하게 할 때는 적절하게 휴식도 주신다. 또한 다른 팀에 비해 회식을 많이 한다. 술 한 잔을 걸치며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다. 그런데 문제는 감독님께서 술을 많이 드신다(웃음).” 그리고 팀을 이끄는 베테랑의 존재 또한 빼놓을 수 없다. 두산은 박찬영을 비롯해 정의경과 송인준이 30대 중반에 접어들었다. 박찬영은 “베테랑들이 자기 역할을 잘 한다. 밑에 있는 선수들보다도 더 열심히 한다. 감독님께서도 우리를 잘 배려해 주신다. 어린 선수들도 우리를 보고 많이 배운다. 개개인의 성향도 짙고, 체계도 잘 잡혀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핸드볼 스타 출신 아내의 뒷바라지 “항상 이해해 줘서 고맙죠”

코로나19로 인해 어디 돌아다니지 못하는 상황이다. 박찬영 역시 훈련이 끝나면 집으로 가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최근 윤경신 감독과 함께 스크린골프를 치며 하루를 즐기고 있다. 박찬영은 “코로나19로 인해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여행도 못 가는 상황이다. 아이들과 놀면서 시간을 보낸다”라고 이야기했다.

박찬영의 아내는 핸드볼 스타 출신이다. 바로 2006 도하아시안게임 금메달, 2008 베이징올림픽, 2010 광저우아시안게임 동메달의 주역 이민희다. 세 살 연상연하 부부인 두 사람은 연애시절부터 오영란-강일구 부부와 함께 수문장 커플로 유명했다. 2010년 2월에 결혼해서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박찬영은 “요즘에는 판세가 바뀌었다. 내가 아내에게 밀린다”라고 웃은 뒤 “그래도 아내가 운동선수 출신이어서 그런지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이해를 많이 해주는 편이다. 나보다 국제대회 메달이 많아서 그런지 경기에서 못 하면 잔소리도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박찬영은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다. 활발한 성격을 가진 아내가 아이들과 집안일로 인해 어디 돌아다니지 못하는 게 내심 마음에 걸린다고 말했다. “시합이나, 전지훈련을 가면 보통 열흘 정도는 밖에서 생활을 한다. 아내는 애들을 보고 있으니까 어디 돌아다니지 못한다. 내가 조금 도와줘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안 되니 미안하다.”

이제는 아이들과 아내가 인생의 전부가 된 박찬영은 핸드볼 선수로서 종착역을 앞두고 있다. 예전에는 올림픽 메달의 꿈도 있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마음을 내려놨다. 박찬영은 “이번 최종예선 연기가 매우 아쉽다. 한창 컨디션이 좋았다. 내년에도 시즌이 끝난 뒤 몸을 만들 수 있다면 뛰고 싶지만 나이를 생각해야 한다. 후배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은퇴 후 미래도 이제는 조금씩 생각하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골키퍼 트레이너가 목표였다. 내가 잘 가르칠 수 있는 포지션이 골키퍼밖에 없다. 내가 은퇴를 한다면 두산의 골키퍼 트레이너가 되어 (김)동욱이와 (김)신학이를 잘 키워보고 싶다.” 그러면서 박찬영은 올 시즌 신인 골키퍼인 같은 팀 김동욱과 하남시

청 박재용의 미래가 기대된다고 한 마디 거들었다. 그는 “골키퍼에서는 동욱이와 재용이가 기대된다. 재용이는 신인왕을 받은 기대주고, 동욱이는 신장이 좋다. 동욱이 같은 경우는 상무를 지원해 나랑 같이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갔다 온다면 나의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싶다”라고 말했다.

박찬영에게 골키퍼란 포지션은 무엇이며, 자신의 핸드볼 인생을 함께한 두산이라는 팀은 어떤 팀일까. 박찬영은 “골키퍼는 공을 많이 봐야 하는 포지션이다. 비디오도 많이 봐야 하고, 분석도 해야 하고, 자신감도 있어야 한다. 수비 선수랑 말도 많이 해야 되는 중요한 포지션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산은 서로 가족이다. 힘든 일 있으면 선배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푼다. 애들이 주말에 우리 집에 놀러와 고기도 먹고, 술도 한잔하면서 친목을 다진다. 정말 가족 같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찬영은 가족들과 두산의 일원들에게 한 마디 남기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항상 시합에 나가 집안을 잘 챙기지 못해 미안해. 그리고 매일 고마워. 운동할 때 항상 이해해 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고마운 마음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두산 선수들,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우승은 언제까지 할 줄 모르는 거다. 그래도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모두의 가슴속에 좋은 기억만 남았으면 좋겠다.”



박찬영의 가족



SK와이번스 인천군 유니폼(SK와이번스 제공)



안양 KGC인삼공사 시티에디션 유니폼(KBL 제공)



프로야구 선수 와인(롯데마트 제공)

인기 스포츠 성공에서 배운다 팬들의 시선은 이곳에!

구매욕구 부르는 프로스포츠 굿즈

모든 프로스포츠 구단들이 한 시즌 준비를 하며 성적만큼이나 신경 쓰는 것이 바로 굿즈, MD 상품이다. 마케팅의 핵심인 MD 상품에 매년 각 구단들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쏟아내며 팬들의 니즈를 만족시키곤 한다. 매년 발전되는 MD 상품들은 또 어떻게 팬들의 얼굴에 미소를 번지게 할까. 핸드볼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에서 출시됐던 이색적이고 인기 많았던 상품들을 소개한다.

경기장 밖으로 나온 굿즈

보통 프로스포츠 MD 상품들은 각 구단의 홈구장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팬들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신이 응원하는 팀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많은 구단들은 MD 상품들을 경기장 밖으로 내보내기 시작했다. 국내 프로스포츠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는 프로야구의 경우에는 팬들이 쉽게 찾는 편의점, 백화점 등에서도 야구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15년 프로야구는 CU, 최훈 카툰작가와 손을 잡았다. 각 구단의 마스코트가 그려진 교통카드를 출시한 것. 고가는 아니지만, 팬들과 가장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길을 찾은 셈이다. 당시 야구팬들은 이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고, 현재는 판매되지 않는 상태에 종종 중고거래로 니즈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다. 프로야구는 1년 후 사상 첫 800만 관중 돌파를 앞두고 또 한 번 이색적인 콜라보레이션을 이뤄냈다.



프로야구 KT 위즈 콜라보 삼푸, 향수 (수원 KT 위즈 제공)

롯데마트와 올빈와인이 국내 최초로 프로야구 선수들의 이니셜과 등번호가 새겨진 '야구 와인'을 출시한 것. 당시 이 와인에는 각 구단을 대표하는 야구선수 약 130여명이 새겨지면서 팬들이 자신의 취향대로 소비를 할 수 있게끔 했다. 이렇게 이미 수요가 많은 프로야구에서는 이렇게 각 구단 자체 MD 상품이 아니라도 외부 기업에서 스포츠판들을 위한 상품 제작이 이뤄지고 있다. 구단에서 직접 외부 손을 내민 최근 케이스로는 KT 위즈의 앵그리헤드 콜라보 삼푸, 푸리 향수가 있었다. 이 역시 팬들에게 필요한 일상생활 용품에 구단의 이미지를 더한 경우. 팬들과의 꾸준한 소통과 접촉을 위해 콜라보레이션 트렌드는 계속되고 있다. 프로야구만큼 인기가 좋은 프로축구에서도 K리그가 과거 MARVEL과 손을 잡고 콜라보레이션 MD 상품을 출시하면서 팬들을 만족시키기도 했다. 특히, K리그의 경우에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통합 MD사업을 추진 중이기에 리그 차원에서 더욱 협조적인 상품 개발이 가능해지고 있다.

역시 핵심은 유니폼? 이색적인 컨셉의 향연

MD 상품의 종류는 워낙 다양해졌지만, 아직까지 그 시장의 규모가 크지 않은 종목들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때 팬들이 가장 많이 손을 뻗는 상품이 바로 유니폼이다. 팬들이 경기를 뛰는 선수



프로축구 마블 콜라보(프로축구연맹 제공)

들과의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아이템이기 때문이다. 이미 프로스포츠계에는 다양한 유니폼이 존재한다. 현재까지 가장 대중화된 건 여성팬들을 잡기 위한 핑크 유니폼과 구단의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써드 유니폼들이다. 유니폼 개발이 가장 주력인 프로농구를 살펴보면 원주 DB가 과거 여성팬들을 겨냥한 핑크색 레플리카를 출시했던 바 있다. 남자 선수들이 뛰는 무대에 여성팬이 많은 기본적인 정보에 입각했지만, 효과는 확실했던 분위기다. 농구뿐만 아니라 이후 프로야구의 LG 트윈스, 키움 히어로즈도 핑크색 유니폼을 출시해 판매량을 높였던 사례가 있다. 써드 유니폼은 기본적인 홈, 원정 유니폼을 제외하고 추가로 제작되는 만큼 각 구단이 의미를 부여해 만드는 경우가 대다수다. 프로야구 SK 와이번스의 경우에는 연고지인 '인천'을 강조하기 위해 별도의 디자인을 최소화한 인천군 유니폼을 출시했고, 프로농구 안양 KGC인삼공사는 시티 에디션 유니폼을 내놓기도 했다. 원주 DB는 스폰서 로고가 거의 없는 NBA를 벤치마킹해 팀의 닉네임인 'PROMY'만이 부각된 써드 유니폼을 제작한 경우도 있다. 이와 더불어 겨울 시즌의 가장 큰 이벤트인 크리스마스를 기념한 유니폼들도 준비한다. 이벤트성 상품이기에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오랜 기간 착용하는 유니폼들은 아니지만, 팬들은 그 순간의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큰 관심을 쏟는 것이기도 하다. 팬들의 니즈는 이토록 확실하기에 앞으로 다양한 종목의 구단들이 어떤 MD 상품을 내놓을지도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이다.

핸드볼 굿즈는 뭐가 있을까

안타깝게도 다른 프로 스포츠에 비해 핸드볼은 아직 구단들의 MD 상품 개발이 활발하지 못하다. 각 구단들이 팬들에게 나눠주는 사인공을 제외하면 별다른 굿즈가 없는 게 현실이다. 때문에 협회에서 앞

장 서 굿즈 상품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협회가 만든 '허벤저스' 굿즈는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끌고 있다.

대한핸드볼협회는 지난 2018년 SK브로드밴드와 협업을 통해 핸드볼 캐릭터 '허벤저스'를 만들었다. 허벤저스는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진 7명의 캐릭터가 핸드볼 클럽팀에서 활동하며 일어나는 이야기를 주제로 하고 있다. 영화감독 지망생으로 센터백을 맡고 있는 옥수수, 단짝 친구 옥수수를 따라 팀에 합류한 레프트윙(LW) 칠리, 골키퍼(GK)로 활약 중인 골쟁, 전 세계 공을 수집하는 취미를 가진 레프트백(LB) 치치, 슈퍼스타를 꿈꾸는 배우 지망생 피봇(PV) 콘파카, 빠르고 정확한 경기력으로 팀의 에이스 역할을 맡고 있는 라이트백(RB) 핸디 그리고 커다란 몸이 콤플렉스라는 라이트윙(RW) 부까지 총 7명의 캐릭터가 출시돼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캐릭터 출시에 발맞춰 다양한 굿즈 상품도 내놓았다. 스마트폰 링, 에코백, 인형, 열쇠고리, 배지 등이 그것. 캐릭터 스토리에 실용성을 더한 굿즈 상품들은 핸드볼 팬들의 소장 욕구를 자극 중이다. 참고로, '허벤저스' 굿즈들은 국가대표 서포터즈 'H팬'에 가입하면 멤버십에 따라 받을 수 있다.

구단들 중에는 SK슈가글라이더즈가 활발하게 MD 상품을 개발해 타팀들의 롤 모델이 되고 있다. SK슈가글라이더즈는 가장 기본인 사인공을 비롯해 티셔츠, 머그컵, 텀블러, 양말, 캐릭터 인형 등 각종 실용성 있는 상품들을 내놓았다. 이 상품들은 SK슈가글라이더즈의 경기가 열릴 때 만나볼 수 있다.

핸드볼이 겨울 3대 인기스포츠가 되기 위해서는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그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 최근 그중 하나로 굿즈 상품이 떠오르고 있다. 구단은 굿즈 상품을 통해 이익 및 구단의 이미지 상승을 꾀할 수 있다. 굿즈 상품 출시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가 된 셈이다. 🌐

핸드볼 SK슈가글라이더즈 굿즈



‘핸드볼계 펭수’, **콘-하** 마스크트 콘파카를 만나다



2019~2020 SK핸드볼코리아리그의 주관 방송사 JTBC GOLF & SPORTS를 시즌 핸드볼 인기 부흥을 위해 ‘HI 핸드볼’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론칭했다. 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은 오영주와 함께 짝을 이룬 ‘핸드볼계 펭수’ 귀요미 콘파카는 팬들에게 강한 이상을 남겼다.

오영주와 케미는 물론이고 선수들과 케미까지 이끌어내며 핸드볼을 알리는 데 조금이나마 일조했다. <핸드볼코리아>는 비시즌에도 핸드볼 부흥에 한창인 콘파카를 만나고 왔다.



Q. 콘파카, 자기 소개 부탁해요.

‘핸드볼의 루키’가 되고 싶은 콘파카입니다. 먼저 콘파카의 부모님은 어린 시절 핸드볼 선수였어요. 그래서 핸드볼 경기도 많이 봤고요. 사실 저는 한국에서 K-POP에 폭 빠져 가요계 데뷔를 하고 싶었는데 쉽

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요계의 루키’가 되지 못한다면 ‘핸드볼의 루키’가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Q. 마스크트는 어떻게 하다 맡게 되었나요.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았기에 핸드볼에 대한 자신감과 열정 하나로



대한핸드볼협회를 찾아갔어요. 핸드볼협회 사무실에 가서 “핸드볼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니 아직은 부족하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귀엽고 하니 구단을 돌아다니면서 문화도 익혀보고 내친김에 입단 테스트를 보라고 권유했어요. 그럼 제가 마스크트를 한 후에 선수로 뛴다고 말했죠.

Q. ‘HI 핸드볼’ 프로그램 소개 좀 해주세요.

‘HI 핸드볼’은 한 주간 경기 리뷰와 분석, 전망 뿐만 아니라 핸드볼의 재미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에요. 핸드볼 선수들도 직접 찾아가 만나고요. 저와 함께 MC를 맡고 있는 (오)영주가 선수들의 고민 상담을 해준다면 저는 입단 테스트를 보면서 선수들과 훈련을 하죠. 무엇보다 핸드볼을 인기 종목으로 만드는 게 최우선 목표예요.

Q. 첫 촬영을 SK호크스에서 했는데 떨리지 않았나요.

SK호크스는 다른 구단들보다 시설이 좋았는데 가서 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숙소도 깔끔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긴장을 했어요. 콘파카답지 않게 어색한 게 많이 나와 아쉬워요.

Q. 돌아다니면서 가장 기억나는 팀이 있을 것 같아요.

삼척시청과 상무피닉스가 떠올라요. 삼척시청을 갔는데 저희가 왔고 그 유명한 방어와 고기를 엄청 사줬어요. 스포츠는 엄할 줄 알았는데 가족 같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상무피닉스에서는 한국식 군대 경험을 해봐서 색달랐어요. 훈련하면서 ‘이것이 전우애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핸드볼은 끈끈함으로 맺어진 가족 같은 운동이에요.

Q. 가장 기억나는 선수도 있나요.

SK슈가글라이더즈 김은아 선수예요. SK슈가글라이더즈 선수들은 김은아 선수를 아빠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촬영할 때 아 빠같이 아우르고 제가 핸드볼을 잘 못하는 데도 칭찬해 주고 이끌어줬어요. 책임감, 카리스마도 있고 무엇보다 김은아 선수 차가 정말 좋아요(웃음). 그만큼 모든 게 기억에 남아요.

Q. 방송 준비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작가님들이 대본과 촬영 동선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랑 영주는 ‘이렇게 이뤄지는구나’라고 익히고 가죠. 저는 애드리브를 많이 하는 편

이에요. 영주도 처음에는 핸드볼 촬영이 어색해 보였는데 지금은 저보다 활발하고 선수들과 더 친하게 촬영을 해요. 둘 다 이제는 대본에 짜인 틀로 안 하는 게 더 편해요.

Q. 같이 호흡을 맞춘 오영주 씨는 어떤 사람인가요?

영주가 나왔던 ‘하트시그널’을 저도 봤어요. 정말 화면에 나온 이미지처럼 순수하고 착해요. 누나처럼 저희를 다 챙기려고 하고, 고민 상담도 잘 해줘요. 영주는 먹거리를 진짜 좋아하는데요. 매니저를 데리고 가서 그 지역의 특산물을 먹거나 혼자라도 가서 먹어요. 초반에는 수줍음도 많긴 했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 활발하죠.

Q. 아직 핸드볼의 인기가 많이 없어요. 핸드볼 인기가 높아지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스타성이 출중한 선수들이 각 팀에 적어도 두 명씩은 있어요. 이 선수들이 미디어에 적극적으로 나와야 해요. 미디어 노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협회에서도 SNS나 방송 출연 등을 계속 시도해야 한다고 봐요.

Q. 이럴수록 ‘HI 핸드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HI 핸드볼’이 추구하는 방향은 뭔가요.

저희는 정보 제공도 중요하지만 핸드볼 자체가 간단하고 지겨운 운동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팬들이 핸드볼을 모르더라도 볼 수 있는 매력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싶어요.

Q. 콘파카도 이제 마스크트 말고 선수로서 ‘HI 핸드볼’에 나와야 될 텐데 말이죠.

이번 비시즌에 살을 빼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선수로서 뛰어도 좋지만 지금처럼 마스크트나 응원단장도 좋아요. 핸드볼의 부흥을 위해 서라면 늘 춤춰도 되고 막 부러먹어도 되니까요. 콘파카를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Q. 콘파카,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한마디 부탁해요.

핸드볼이 인기 종목이 되기까지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뭐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기장에 많이 찾아와서 저랑 놀아봐요. 모두 코로나19 조심하시고 조만간 다시 만나길 희망합니다.🙏



권한나



황도엽

INSIDE

생애 단 한번의 영광 역대 핸드볼코리아리그 신인왕들

2011년에 처음 시작된 핸드볼코리아리그는 많은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뽐냈다. 그 중 각 팀의 새롭게 지명을 받은 신인 선수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발휘하기 위해 더 열심히 코트 위를 누볐다. 지금까지 2011시즌부터 2019~2020시즌까지 총 18명의 남녀 신인왕을 배출한 가운데 이들의 최근 행보를 알아보고자 한다.



김동철



이효진

초대 신인왕 박철중-주경진

2011시즌 초대 남자부 신인왕은 박철중이었다. 당시 국군체육부대(現 상무피닉스) 소속이던 박철중은 센터백 포지션에서 50골 24어시스트를 올렸다. 정수영, 박중규(이상 하남시청), 고경수(인천도시공사) 등 쟁쟁한 선배들과 득점 경쟁을 펼치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는 슛도 좋고, 상대 수비를 따돌리는 패싱 능력이 좋다는 평을 받았다. 그는 데뷔 전부터 심재복(인천도시공사)과 함께 많은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인천도시공사의 주장을 맡으며 오랜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친구 심재복과는 달리 선수 생활은 길지 못했다. 여자부 초대 신인왕은 삼척시청에서 뛰던 주경진이었다. 주경진 역시 박철중과 마찬가지로 센터백 포지션에서 55골 28어시스트 8스틸을 기록하며 신인왕에 올랐다. 주경진은 2013년에 정지해, 우선희, 한미슬 등과 힘을 합쳐 삼척시청에 리그 첫 우승을 안기는 데 기여했다. 그녀는 당시 60골 56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쓸쓸한 활약을 펼쳤다. 이후 주경진은 2017년 11월, 대한핸드볼협회에 은퇴선수로 공시됐다.

몇 년 전만 해도 풋풋했던 지금의 슈퍼스타들

2012시즌 신인왕은 충남체육회(現 충남도청) 소속이던 김동철과 서울시청 소속의 권한나였다. 김동철은 56골 16어시스트 6스틸을 기록했다. 그는 정의경, 임덕준(이상 두산) 등 쟁쟁한 형들을 제치고 득점 7위에 올랐다. 권한나 역시 89골 24어시스트를 올리며 존재감을 보여줬다. 이후 2년 뒤 권한나는 MVP까지 수상하며 최고 선수 대열에 합류했다. 두 선수는 여전히 현역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에서 뛰던 김동철은 2019~2020시즌을 앞두고 SK호크스로 돌아왔다. 그는 2019~2020시즌에도 어시스트 3위(50어시스트), 득점 4위(55골)를



주경진

기록하며 여전히 '클래스'를 보여줬다. 현재 부산시설공단에서 뛰고 있는 권한나는 지난 시즌에 대기록을 썼다. 남녀부 통틀어 최초로 900골을 돌파하며 득점 기계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다. 지난 시즌에도 69골을 넣었다.

2013시즌 신인왕은 인천도시공사 소속의 고주석과 경남개발공사 소속의 이효진(삼척시청)이었다. 그해 고주석은 75골 43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당당하게 신인왕에 올랐다. 데뷔 전부터 대형 신인으로 기대를 모았던 이효진은 133골 70어시스트라는 놀라운 기록을 써냈다. 득점 TOP5에 들며 팬들의 눈도장을 찍었다.

이효진은 탄탄대로 길을 걸었다. 국가대표로서 활약할 뿐만 아니라 2017년에는 SK슈가글라이더즈의 우승을 이끌었고, 첫 정규리그 MVP와 BEST7(센터백)을 받았다. 2014시즌에는 두 신인 선수가 신인왕과 함께 팀 우승을 맛보는 겹경사를 맞았다. 웰컴론(해체) 소속 이현식과 인천시청 김희진이 받았다. 이현식은 69골 15어시스트를 기록했는데, 이때 당시 윤시열에 이어 득점 2위에 올랐다. 웰컴론은 이현식의 맹활약과 박종규, 이창우, 김장문 등 베테랑의 활약을 앞세워 두산의 연속 우승을 저지했다. 두산이 핸드볼코리아리그 출범 후 우승을 하지 못한 해는 이때가 유일하다. 김희진도 78골(9위) 37어시스트(11위)를 기록했다. 그녀는 당시 류은희, 김선화, 신은주, 원선필 등 내로라하는 선수들과 함께 뛰며 팀 우승에 기여했다.

이현식은 그 다음 해인 2015시즌에는 득점왕에 올랐다. 현재 SK호크스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김희진은 여전히 인천시청의 왼쪽을 책임지며 코트 위를 누비는 중이다. 그녀는 지난 시즌 블로킹 5위(21블로킹)에 올랐다.

2015시즌 신인왕 선수들은 득점에 일가견이 있는 선수들이었다. 남자부 신인왕 황도엽(두산)은 쟁쟁한 선배들 사이에서도 주전으로 뛰었다. 득점 6위(46골)에 오른 황도엽은 당시 신인왕과 함께 BEST7에도 이름을 올렸다. 강경민(광주도시공사) 역시 김은아(당시 인천시청)에 이어 득점 2위(118골)에 올랐다. 당시 광주도시공사의 전력이 약해 강경민 쪽으로 공격이 몰리긴 했어도 이만큼의 득점을 신인 선



강경민



조수연



박지섭

수가 올리는 것은 쉽지 않다. 황도엽은 여전히 두산의 간판 라이트윙으로 뛰는 중이다. 그는 2016시즌과 2019~2020시즌에 BEST7(라이트윙)에 이름을 올렸고 국가대표팀에도 차출된 이력이 있다. 강경민은 우여곡절이 좀 있었다. 한동안 코트를 떠났다가 지난해 여름에 다시 광주도시공사로 왔다. 공백기가 있었지만 그의 실력은 여전했다. 개막전부터 17골을 몰아치더니 결국에는 2019~2020시즌 리그 득점왕(123골)과 MVP, BEST7(센터백)을 모두 씹쓸이했다.

창단과 함께 2년 연속 신인왕 배출, SK호크스

2016시즌에는 코로사가 해체되고 SK호크스가 새롭게 리그에 합류했다. SK호크스는 여러 신인 선수들을 고루 기용한 가운데, 박지섭이 신인왕에 이름을 올렸다. 라이트윙인 박지섭은 43골을 기록하며 신인왕을 탔다. 여자부는 경남개발공사 김보은이 수상했다. 당시 김보은은 약한 팀 전력에도 불구하고 체력 관리가 필요한 피봇에서 95골 36어시스트를 올리며 신인왕을 받았다.

김보은은 경남개발공사 간판으로 우뚝 섰다. 김보은은 지난 시즌에 77골(득점 5위) 17어시스트 13스틸(스틸 2위)을 기록했다. 그녀의 활약 덕분에 경남개발공사도 팀 창단 후 최다 승인 6승을 기록하며 5위로 시즌을 마쳤다.

2017시즌 신인왕 선수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남자부는 장동현, 여자부는 조수연이 그 주인공인데 두 선수는 한국체대 출신이며 SK 소속이었다는 점이다. 장동현은 대학 때까지만 하더라도 피봇에서 활약했지만 SK호크스에 입단한 뒤로는 윙 포지션에서 활약하고 있다. 그는 포지션 적응을 위해 10kg 이상 체중 감량에 도전했고, 반복된 포지션 훈련을 가졌다. 그 결과 2017시즌 신인상과 BEST7(레프트윙)에 선정되는 기쁨을 누렸다. 2017시즌에 정수영에 이어 팀 내 득점 2위(65골)에 올랐다. 데뷔 전부터 '될성부른 떡잎'이라 불리던 조수연 역시 95골 44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신인왕과 함께 팀 우승을 맞았다. 이효진, 유소정, 김은아, 김선화 등 초호화 멤버들 사이에서도 최고의 활약을 보여줬다.

두 선수는 어느덧 국가대표로 성장해 국제 대회에서도 맹활약했다. 장동현은 2018~2019시즌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할 정도로 한층 더 성장된 기량을 보였다. 그는 두 시즌 연속 BEST7(레프트윙)에 이름을 올렸다. 2019~2020시즌에는 다소 기대에 못 미쳤다. 31골에 그쳤다. 조수연은 데뷔 시즌에 이어 2019~2020시즌에도 우승을 맞보는 데 성공했다. 65골 36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유소정과 함께 팀 공격을 책임졌다. SK슈가글라이더즈 박성립 감독도 조수연의 기량이 올라왔다고 칭찬했다.

겨울 시즌 돌입 영광의 주인공들은 누구?

2018~2019시즌은 첫 겨울 시즌으로 리그가 진행된 가운데 하남시청 박광순과 삼척시청 박소연이 신인왕의 영예를 안았다. 경희대 시절부터 대형 신인이라 불리던 박광순은 데뷔 시즌부터 엄청난 득점력을 가공했다. 159골 40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자신이 왜 대한민국 남자핸드볼의 미래인지'를 보여줬다. 2위 최현근(122골)과 무려 37골이나 차이가 났다. 신인왕은 물론이고 BEST7(레프트윙)에도 이



우빛나



박재용

름을 올렸다. 만약 팀이 우승을 했더라면 MVP를 받아도 손색없다는 평을 받았다. 박소연은 많은 득점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고비 때마다 팀의 활기를 넣어줬다는 평을 받으며 최대어 강은혜(부산시설공단)를 제치고 단 한 번뿐인 신인왕의 영예를 안았다.

박광순은 여전히 자신의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2019~2020시즌에도 팀 선배인 정수영과 함께 또 한 번 득점왕에 올랐다. 남자부에서 두 시즌 연속 득점왕에 오른 선수는 박광순이 유일하다. 리그 BEST7(레프트윙) 수상 역시 당연했다. 국가대표 차세대 에이스 후보 1순위이다. 박소연도 삼척시청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중이다. 2019~2020시즌 신인왕은 하남시청 박재용과 서울시청 우빛나다. 두 선수는 코로나19로 인해 리그가 조기 종료된 탓에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꽤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두 선수는 일찌감치 팬, 관계자 등 많은 이들에게 관심을 받았다. 박재용은 한국체대 재학 시절부터 국가대표 주전 골키퍼로 된 경험이 있다. 2019 세계남자핸드볼선수권대회 단일팀 주전 골키퍼였다. 우빛나는 2019 신인드래프트 전체 1순위에 빛나는 선수로 연령별 대표팀을 거쳐오며 많은 주목을 받았다. 우빛나는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않았음에도 47골을 넣으며 내년 시즌을 향한 기대감을 보였다. 박재용 역시 38.57%의 방어율을 보였다. 특히 박재용은 지난 2월 9일 두산과 경기에서 16개의 세이브를 기록하며 두산의 정규리그 연승 행진을 30연승에서 멈추게 한 바 있다.

지금까지 신인왕을 받아온 선수들은 대부분 탄탄대로의 길을 걷고 있다. 누군가에게 그들은 본보기의 대상이다. 박재용과 우빛나도 남녀 핸드볼의 미래로 불리며 성장했고, 결국에는 단 한 번뿐인 신인왕을 받았다.

다가오는 2020~2021시즌에는 주목되는 신인 선수들이 많이 등장

한다. 여자부는 좋은 기량을 가진 한국체대 선수들이 대거 신인드래프트에 나온다는 소문이 있다. 벌써부터 여자팀 감독들은 드래프트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신인왕은 생애 단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상이다. 앞으로 소중한 수상의 영예를 누가 안고 갈지 기대된다. 🍀



박광순



조선대 강준구

올 시즌 기대해볼 대학 신입생들은 누구?

2020 대학핸드볼 통합리그가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개막일을 잡지 못하고 있다. 본래 3월 27일부터 7월 말까지 약 다섯 달의 대장정에 돌입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에 발목이 잡혔다. 여전히 팀 훈련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가 아직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 일부 대학들은 1학기 수업을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하겠다고 발표까지 한 상황이다. 현재 가장 아쉬운 이는 이번에 각 팀에 새로 들어온 신입생들이 아닐까 싶다. 그런 상황에도 각 대학 신입생들은 팀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열심히 핸드볼 코트 위를 누빈다고 한다. 그리하여 준비했다. 각 감독들이 뽑은 팀의 유망주를 알아보자.

‘3강’ 한국체대-경희대-강원대 감독들이 뽑은 유망주

남자1부는 일반적으로 한국체대-경희대-강원대 3강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먼저 3년 만에 재개한 2019 대학핸드볼 통합리그에서 라이벌 경희대를 물리치고 우승한 한국체육대학교 김민구 감독은 김찬영을 뽑았다.

삼척고를 졸업한 김찬영은 오른손 잡이다.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순간적인 돌파라든지 어시스트 능력이 뛰어난 선수다. 김찬영은 어시스트뿐만 아니라 득점을 몰아치는 능력에도 일가견이 있다. 지난

2018 핸드볼코리아 전국 중고선수권대회 남자 고등부 결승전 전북제일고와 결승전에서 혼자 14골을 몰아치며 팀의 우승을 이끈 바 있다. 김민구 감독은 “순간순간 코트에서 번쩍이는 능력을 가진 선수다. 신인이기에 많은 경기 출전 시간을 뒀을 수도 있지만 들어간다면 제 몫을 할 선수다”라고 평했다. 한국체대는 박재용(하남시청), 조동함(SK호크스)이 졸업했지만 신입생들이 다수 들어와 전력 이탈이 별로 없다.

정규리그는 우승했지만 챔피언결정전에서 한국체대에 우승 타이틀을 빼앗긴 경희대 김만호 감독. 김 감독은 남한고 졸업생 이혁규를 뽑

았다.

또래 선수보다 한 살 많은 이혁규는 주로 백 포지션에서 뛰는 선수이며 고등학생으로 뛴 마지막 대회인 2019 전국체전에서 남한고에 준우승을 안겼다. 이혁규는 중거리슛이나 페인트 공격에 능한 선수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강일구 감독이 지난 2월 소집한 국가대표 상비군에도 뽑힐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다. 김만호 감독은 이미 이혁규를 주전으로 기용할 생각이다. 김 감독은 “김진영과 함께 팀의 공격 첨병 역할을 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다. 경희대는 김진영, 이요섭 외에도 이혁규까지 합류해 강력한 전력을 갖췄다.

지난해 정규리그 3위를 차지한 강원대 박현종 감독은 낙동고를 졸업한 오형석을 기대주로 뽑았다.

오형석은 오른손 잡이로 박현종 감독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일찌감치 눈여겨 봐왔다. 전북제일고, 남한고에 비해 덜 유명한 낙동고에서 에이스 노릇을 해온 선수다. 오형석은 윙 포지션에서 빠른 스피드로 상대 수비의 체력을 떨어뜨리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이 뛰기에 체력 부분이 단점으로 뽑히고 있다. 박현종 감독도 “형석이는 체력이 아직 부족하다. 비시즌 동안 웨이트 트레이닝과 함께 체력 훈련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했다.

다크호스 원광대-충남대-조선대 ‘우리도 주목하라’

원광대 정호택 감독은 여섯 팀 감독 가운데 유일하게 신입생 골키퍼를 뽑았다. 그 주인공은 바로 이해성이다.

이해성은 전북제일고를 졸업한 후 지역 인근 대학인 원광대에 러브콜을 받았다. 이해성은 177cm로 골키퍼로서 큰 신장을 가진 선수는



원광대 이해성

아니다. 하지만 순발력과 타이밍이 좋은 선수로 평가받고 있다. 이해성은 지난해 3월에 열린 제28회 협회장배 전국중고선수권대회에서 우수 선수상을 받을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다. 물론 곧바로 주전으로 활약하기는 힘들다. 주전 골키퍼 김민석의 뒤를 받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호택 감독은 “골키퍼가 약해 고민이 많았는데 이해성을 데려와 다행이다. 쓸쓸한 백업 선수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원광대는 여섯 팀 중 가장 많은 6명의 신입생을 뽑았다.

충남대 박종표 감독은 신준영-박준형 선수를 이야기했다. 신준영은 경원고, 박준형은 선산고를 졸업했다. 두 선수 모두 위에서 이야기한 선수들보다는 아직 기량이 낮다고 평할 수는 없지만 박종표 감독은 장기 계획을 세워 이들을 키우려 한다. 박종표 감독은 “실력은 떨어질 수 있지만 신입생들이 들어와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 운동량이나 체력적인 부분이 걱정이 되지만 길게 보며 선수들을 키워보려 한다”라고 말했다. 충남대는 네 명의 선수가 새로이 들어왔다.

마지막으로 조선대 김오군 감독은 전북제일고 졸업생 강준구를 주목하고 있다. 강준구는 지난해 4월 열린 제74회 전국종별핸드볼선수권대회에서 전북제일고를 우승으로 이끌며 대회 MVP를 수상한 바 있다. 강준구는 피봇에서 또래 선수들에 밀리지 않는 몸싸움을 펼치며 고교 시절 전북제일고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김오군 감독 역시 “피봇 선수로서 신장도 있고, 몸싸움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한 골을 책임질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강준구는 최후방을 지키는 골키퍼 안재필과 함께 조선대 수비 라인을 책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포지션은 다르지만 졸업 후 실업으로 간 에이스 김민재-민병탁(이상 충남도청)의 역할도 대신할 예정이다. 🌐



한체대 김찬영



류은희, 프랑스여자핸드볼리그 2월의 선수로 선정

한국 여자 핸드볼의 간판 류은희(30)가 프랑스여자핸드볼리그 '2월의 선수'로 뽑혔다. 프랑스 여자핸드볼리그(LFH)는 "2019-2020시즌 2월의 선수에 Paris92 소속 류은희를 선정했다"라고 발표했다. 지난 시즌까지 부산시설공단에서 활약한 류은희는 2018-2019시즌 SK핸드볼코리아리그에서 소속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다. 그녀는 정규리그와 챔피언결정전 최우수선수(MVP)를 석권했다. 이후 프랑스리그 Paris92와 2년 계약을 맺고 유럽에 진출한 류은희는 이번 시즌 71골을 터뜨리며 득점 부문 공동 14위에 올라 있다. 류은희는 지난 2월 소속팀의 3경기에 출전해 18골을 터뜨리며 프랑스 진출 첫해에 이달의 선수에 뽑히는 저력을 과시했다. LFH 이달의 선수는 12개 팀 감독 등으로 구성된 후보 선정 위원회를 통해 3명의 후보를 가려낸 뒤 팬 투표로 통해 선정한다. 류은희는 2월에 21골을 넣은 브루나 드 폴라(브라질), 19골의 멜리사 아가테(프랑스)와 함께 후보로 선정됐고 팬 투표에서는 45%를 획득해 31%의 드 폴라와 24%를 얻은 아가테를 제치고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핸드볼협회, 핸드볼 종합 교습서 '모두의 핸드볼' 발간

대한핸드볼협회는 4월 14일 "기초부터 응용 기술까지 핸드볼 전반을 쉽게 설명한 종합 교습서 '모두의 핸드볼'을 발간했다"라고 밝혔다. '모두의 핸드볼'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여자 대표팀 금메달 감독인 정형균 한국체대 교수가 저자를 맡았다. 현재 아시아핸드볼연맹 기술 위원장을 맡은 정 교수는 대표팀과 한국체대 등에서 핸드볼을 가르치며 얻은 노하우와 최신 핸드볼 트렌드를 책에 담아냈다. 협회는 현장에서 핸드볼을 가르치는 각급 학교와 실업팀 지도자들에게 교습서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며 강습 동영상은 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공개한다. 이 교습서는 또 전국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살 수 있다.

KHF 핸드볼 클럽 개강일, 오는 8월로 결정

대한핸드볼협회는 KHF 핸드볼 클럽 개강일을 오는 8월로 최종 결정했다. 본래 핸드볼 클럽 개강일은 지난 3월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서 개강일이 잡혔다. 전반기에 신청한 참가자들은 별도의 추가 등록 절차가 따로 필요 없다. 환불을 원하는 신청자들은 KHF 핸드볼 클럽 홈페이지에서 환불 신청할 수 있다. 개강 시작 후 2주까지는 100% 환불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 협회는 "KHF 핸드볼 클럽은 철저한 방역과 수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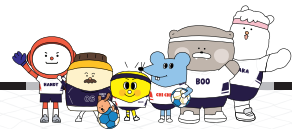


우리나라도 프랑스처럼 열정적인 팬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숨 막히는 요즘 <핸드볼코리아> 덕분에 잠시나마 숨통이 트였습니다. 특히 류은희 선수가 소개하는 프랑스와 리그 문화 기사를 통해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핸드볼 문화 차이를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핸드볼 그 자체에 관심이 많고, 관중석도 가득 찬다는 것은 한 명의 핸드볼 팬으로서 굉장히 부럽습니다. 저도 프랑스리그를 직접 보고 싶어졌어요. 기사 쓰시는 기자분들도, 보기 좋게 편집해 주시는 디자이너분들도, 핸드볼코리아도, 독자들도 다가오는 여름 시원하게 보내세요. 모두 모두 화이팅! <정소민>

권한나-정수영 선수의 인터뷰 기사를 읽고...

4월호 메인 표지를 장식한 권한나, 정수영 선수의 인터뷰 기사 잘 읽었습니다^^ 저 멀리 강원도 삼척까지 가는 <핸드볼코리아> 정말 '리스펙'합니다. 기사를 읽으며 든 생각이 '두 선수의 핸드볼 인생이 쉽지는 않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언제나 치열한 핸드볼 인생을 살아온 두 선수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권한나-정수영 언제나 힘내세요. <송가람>



독자의견을 보내주세요!

핸드볼코리아 5·6월호(vol. 46)에 대한 의견을 6월 10일까지 이메일(77basket@daum.net)로 보내주세요.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 경품수령을 위해 주소와 전화번호를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IHF OFFICIAL GAME BALL



[Size3] H3X5001-BW [Size2] H2X5001-BW Synthetic Leather / Hand Stitched / Latex Bladder

한국 수입, 판매원
미스스포츠
070-4367-1432

FILA

